

준비하는 자에게는 죽음도 축제다

정리·편집부 / 자료 제공·손 까리따스 수녀 |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중고등부

학습 목표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음의 순간을 위해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시작 기도

들어가기 전에

죽음은 무엇일까? 가톨릭 대사전에는 “인간의 지상 순례의 끝이며, 지상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현하고 자신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느님이 주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지상 생활이 끝난 다음 인간은 또 다른 생활을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또 국어사전에서는 “생명 활동이 정지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즉,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한 번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을 뿐이다. 그러나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생을 마감하는 의로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허무한 죽음도 있다. 뇌사 상태의 한 고교생은 장기를 기증해 여섯 명을 살리기도 했다.

신문엔 죽음과 관련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는 죽음을 어려운 현실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언제 죽을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진탁 교수(한림대·철학)는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며, 죽음을 유념하며 산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산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제대로 영위하는지 되돌아보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우선은 죽음을 두려운 것,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죽음이란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야”

봄이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곤 했다. 인공적으로 부화된 병아리기 때문에 평범한 초등학생으로서도 도저히 답으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은 어른이 다 되어서였다.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만들어 주고 시간 날 때마다 놀아 주고 나름대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뛰어와 병아리를 마당에 풀어 놓고 “구구구구...” 하면서 먹이를 주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병아리 집을 여는 순간 싸늘하게 쪽 벌은 채로 죽어 있던 병아리를 발견했고 난 “누가 내 병아리 죽였냐?”며 하루 종일 울었다.

빈 깡통에 숨을 채우고 죽은 병아리를 넣어 땅에 묻는 의식으로 병아리 장례를 치렀다. 그 날 이후,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병아리 묻은 곳을 파서 병아리가 들어 있는 깡통을 확인하곤 했다.

초등학생이던 내게,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은 이런 것이었다. 만날 수 없고 같이 놀 수도 없으며 장난칠 수 없고 모이를 먹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이별. 그것은 슬픔이었다. 병아리가 심

하게 부패되어 흙이 되어 갈 때쯤에야 나는 병아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로도 해마다 봄이면 학교 앞에 병아리 장사가 왔었지만 나는 다시 병아리를 사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 엄마 정말 죽었어요?”

여섯 살 다인이 엄마는 ‘굴욕종알’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러나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하느님께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다. 다인은 미스코리아 같던 엄마가 왜 항상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지, 왜 뺨뺨머리를 하고 있는지, 엄마의 다리는 왜 꼬끼리 다리만큼 커졌는지 알지 못했다.

다인이 엄마는 얼마 뒤, 다인이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힘들어 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인이가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며 힘들어 할 때마다 꺼내어 읽을 수 있게 편지를 쓰고 있다. 다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생이 되고 첫 생리를 시작할 때,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생이 될 때, 첫 미팅을 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엄마의 부재를 조금이나마 채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인은 엄마의 숨이 멈추던 날 “우리 엄마 정말 죽었어요?”라고 물더니 엄마의 마지막 체취가 묻은 휴대전화를 장례가 끝날 때까지 꼭 쥐고 있었다. 다인에게 엄마의 죽음이란 할

게 놀이동산도 갈 수 없고 꺼안고 잘 수도 없는 것이었다.

다인이는 엄마와 행복하게 지낸 6년보다 엄마가 힘들어했던 3개월을 더 기억할지 모른다.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인에게 엄마가 남겨준 선물들을 하나씩 전해 주면서 엄마가 마지막까지 다인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남겨진 딸과 늘 함께하고자 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선물. 그것이 다인이 엄마가 하늘로 돌아가기 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희망으로 바꿔 준 것이다.

■ 내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라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열흘→한 달→1년→10년→50년으로 늘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정리해 봅니다.

■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며, 자신이 현재 삶에 얼마나 충실한지 되돌아보고 발표합니다.

활동 1

준비물 : 각 내용에 맞는 준비물
시험부 인생인 나,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 친구, 의사 등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간단히 역할극을 합니다.

활동 2

준비물 : 필기도구, 용지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가상 유언장(묘비명)과 10, 20, 30년 후의 것도 작성해 비교해 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아래 물음에 대해 봅시다.

수험생 시험장 빠져나와 투신 자살 시험지에 유서 남겨

수능시험을 치르던 여고생이 시험지 여백에 낙서처럼 갈겨 쓴 유서를 남긴 채 시험장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5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북 남원시 노암동 H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18층 계단에서 N여고 3학년 이 모(18, 남원시 왕정동) 양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양은 이날 1교시 언어영역 60문제 중 3개 맞을 뿐 뒤 시험지 여백에 “엄마, 언니·아빠를 행복하게 해 주세요. 할아버지, 이모부도”라는 낙서를 남겼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인 '1985년 8월 22일' 과 수능시험을 치르던 날인 '2003년

참고 “나면서부터 크게 어리석었고 / 자라면서 병이 많았네 / 중년에 어찌 학문을 좋아하게 됐고 / 말년엔 외람되게 벼슬이 높았네. ... 근심 속에 즐거움 있고 / 즐거움 속에 근심 있네 / 저 세상으로 떠나며 생을 마감하는데 /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퇴계 이황 선생이 죽기 전에 조카에게 유언해 묘비에 남긴 글이다. 자신을 낮추고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다가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때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됐던 원로 작가 한말숙(72) 씨도 한 문예지에 기고한 가상 유언장에서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 없이 생을 마치다”라고 쓴 묘비명을 공개했다.

11월 5일' 을 적어 놓았다.

이 양의 님알 정모(31) 교사는 “성적은 중하 위권이었고 외근관이 꿈이었다.”면서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고 1교시 시험을 잘못 치른 데다 몰 초부터 가정 형편이 곤란해져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아일보 2003년 11월 6일자 9면)

활동 3

준비물 : 신문(최근 일주일치 분량), 필기도구, 용지
최근 일주일치 신문에서 죽음을 다룬 기사를 찾아 죽음의 형태(자살·타살·자연사·병사·사고사·안락사·사형·기타 등)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의미 있는) 죽음과 불행한(무의미한) 죽음을 고르고,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 (초연 1949년)에서 주인공 윌리 로만은 장남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자동차를 과속으로 달려 자살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이 꼬리를 물며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눠 봅시다. 또 주변에 자살하려는 친구가 있을 땐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죽음을 유념하며 삶을 산다는 말은 의미 없는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을 구분해 현재의 삶을 보다 충실히 영위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 준비는 삶을 준비하라는 의미이며



■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살신성인을 실천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발표해 보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다음을 읽어 보고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자기 삶을 점검해 보라는 뜻이다. 따라서 죽음 준비 교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삶의 교육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죽음 준비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의 다양한 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독일 역시 학생의 성장 과정에 맞게 죽음이란 테마를 다양한 각도에서 취급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죽는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내일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곧 삶의 거울이다. 따라서 죽음, 그것은 곧 삶의 문제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 하기보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평온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도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고자 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화로운 죽음을 희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일구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임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죽음은 두려운 현상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죽음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찾아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 어떻게 사는 게 보람 있는 삶인지 생각해 보고 내용을 정리해 발표해 봅시다.

마침 기도